

작년 합계 출산율 0.98 사실상 세계 유일한 '0명 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확정됐다. 한국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가 1명도 채 안된다는 얘기가.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어느덧 30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진 연간 출생아 숫자는 머지않아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다. 상반기(1~6월) 출생아수는 15만8,524명으로 전년동기(17만1,800명)보다 7.7% 감소했다. 매달 출생아수가 2,000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30만 명대를 가스로 턱걸이하거나 29만 명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모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전년 대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30대 초반이 91.4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이 46.1명, 20대 후반이 41.0명 순이다. 20대 후반 출산율이 처음으로 30대 후반 출산율보다 낮아졌다. 지난해와 비교해 20대 후반(6.9명, -14.4%)과 30대 초반(6.3명, -6.4%) 출산율이 크게 감소했다.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아는 31.9세, 둘째아는 33.6세, 셋째아는 35.1세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0.2~0.3세 상승했다. 그만큼 노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실제 35세 이상 산모 구성비는 31.8%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혼인 외의 출생아는 7,200명으로 전년 대비 200명 증가했다. 혼인 외의 출생아 구성비는 2.2%로 전년 대비 0.3%p 늘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혼외 출생아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28일 '머니투데이'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8년 출생통계 확정'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32만6,800명으로 전년 대비 8.7%(3만900명) 줄었다.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출생아 수는 2002~2016년 사이 40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2017년 30만 명대로 줄었고,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17년(1.05명)보다 더 낮아졌다.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건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다.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선(대체출산율)이 2.1명임을 감안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인구가 반토막 나는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 또한 지난해 6.4명으로 집계돼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출생아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

직장인 5명 중 1명, 추석 연휴 여행 계획

직장인 5명 중 1명은 이번 추석연휴 동안 여행을 떠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8일 '뉴스1'에 따르면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여기어때'와 함께 직장인 2,57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4%가 '여행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행은 주로 '가족' (57.4%)과 함께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인' (18.8%), '친구' (12.7%) 순이었으며, 혼자 떠난다는 응답자도 9%였다.

여행지는 국내여행(84.1%)을 계획한 응답자가 해외 여행(15.9%)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이전 설이나 추석 연휴보다 짧은 연휴로 인해 가까운 국내여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올 추석 연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1박 2일' (40.5%) 또는 '당일치기' (28.4%), '2박 3일'(23.6%) 등 비교적 짧은 일정으로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하는 여행 경비는 평균 44만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7.3%), '홍콩, 대만, 마카오' (20%), '중국' (8%), '일본' (8%)

등을 여행지로 꼽았다. 지난해 여름 휴가지 1위를 기록한 일본(35.2%)은 무려 27.2%p 급감해 최근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를 체감할 수 있었다.

여행 일정은 '3박 4일' (26.7%)이 가장 많았다.

해외여행 예상 경비는 평균 182만원으로 국내 예상경비보다 4배 이상 많았다.

한편 대형마트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무휴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가 월 2회 휴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역마다 의무휴업일의 요일은 다른데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전라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9월8일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의무휴업일인 것이다. 이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3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추석 연휴 직전 주말 의무휴업일인 9월8일을 추석 당일인 9월13일로 바꿔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추석 대목인 9월 8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명절 직전 주말은 평균 대비 1.5배 가량 많다.

서울과 부산 지역 지자체는 대형마트 측에 의무휴업일을 변경해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